

“남도 전통음악 전문성·대중성 확보 주력”

국립남도국악원 2023년 주요업무

대표작 심·진도씻김굿 공연 추진 다문화가족 체험 등 해외 교류도 국악학교 등 시민 프로그램 다양

국립남도국악원이 올해 굿음악 축제 등 여러 콘텐츠를 100% 대면 방식으로 정상 운영해 전문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주요 우수작품을 재구성하고 해외교류 사업을 확대해 전통예술 문화향유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연의 첫 시작은 창작 초연한 대표작품 ‘섬’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진도와 서울 공연을 성료한 작품으로 내부는 물론 외부 평론가와 일반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2월 부산, 3월 3일과 4일 남원에서 공연을 완료했으며 오는 2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2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섬’은 남도 지역의 토속민요를 중심으로 3대에 걸친 비극적 한반도 역사를 다뤄 ‘남도의 한’을 잘 나타냈다는 평을 받는다. ‘섬’뿐만 아니라 남도국악원이 창·제작한 △어린이국악극 ‘우리랑 진도개비’ △진도씻김굿도 올해 재공연을 앞두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교류체험’과 ‘신기술융합콘텐츠’를 꾸린다. 먼저 ‘다문화가족 교류체험’ 사업은 진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300명을 선정해, 한국으로 출신국(베트남, 필리핀) 가족을 초청(5회)하고, 반대로 출신국을 방문(5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기술융합콘텐츠’는 진도국악원의 대표 체험·전시 콘텐츠로 활용한다. 공연장과 로비에 입체영상, 국악기 등을 전시하거나 국악 감상 및 리듬 게임 콘텐츠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국제교류 사업들도 정상화를 꾀한다. 완전히 중단됐던 해외 공연은 4월 브라질과 페루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 헝가리에서도 초청공연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해외동포와 외국인인 우리나라로 초청해 2주간 전통예술 연수기회를 제공한 ‘해외동포 국악연수’ 사업도 접수 결과 18개국에서 총 582명이 접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올해는 14개국 334명을 선정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수를 제공한다.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도요상설공연’은 시간대를 기존 오후 5시에서 3시로 변경했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선보이는 공연과 함께 명

인명창 초청공연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단체 지원 공연 등 다채롭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상설공연의 품격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를 비롯해 교직원과 예비교직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연수 사업 역시 활발하게 추진한다. 또 문화소외지역 어르신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국악원’과 ‘교실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국악이론과 지역문화예술을 연구하는 학술총서 ‘복讖의 굿과 음악’을 비롯해 남도무형 문화에

지난해 진행된 무대 한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술시리즈 음반 발매와 오는 6월 ‘2023 굿음악 축제’ 등 학술연구 사업도 이어간다.

명현 국립남도국악원 원장은 “2023년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예술, 국악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올해도 국립남도국악원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70여점 손글씨 작품 선보여

땅콩나무문화예술협, 첫 회원전 동구 갤러리 ‘함’서 20일까지

캘리그래피 관련 작품활동을 하는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가 첫번째 회원전 ‘땅콩나무캘리그래피 씨앗’전을 오는 20일까지 광주 동구 갤러리 ‘함’에서 연다. ‘이미 그대로 괜찮으니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18명의 회원이 70여점의 손글씨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

전시 주제 ‘이미 그대로 괜찮으니까’는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 고민했던 경험과 위로를 의미하며, 회원들은 손글씨 작품을 통해 서툰 어른들을 응원하고자 한다. 40여명의 회원들은 매년 캘리그래피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광주에서 캘리그래피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시 기간 중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무료 글씨나눔 체험이 가능하며, 18일 오후 2시에는 양중희 대표의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의 네이버 블로그 또는 갤러리 함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전쟁 후에’ 유럽 투어 성료

덴마크·스웨덴·독일·폴란드서 관객전원 기립박수 호평 일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AFTER WAR 전쟁 후에’ 유럽 투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유럽 투어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덴마크를 시작으로, 24일 스웨덴, 26일 독일, 28일 폴란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쟁 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덴마크 오딘극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여간 함께 제작한 공연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과 항쟁, 그리고 치유와 화해를 음악과 몸짓으로 표현해 낸 작품이다.

ACC재단은 이번 투어를 앞두고 다양

한 규모의 공연장 형태에 맞추기 위해 기존 대극장에서 소극장 형태로 다시 제작해 유럽 4개국에서 첫 선을 보였다.

작품은 한국의 처용무를 시작으로 국악의 악기와 소리가 무대 위를 흐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어 ‘오월의 노래’로 마무리되며 유럽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관객들은 한국어와 영어 대사가 혼재돼 있음에도 배우들의 소리와 몸짓에서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느끼며 전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마지막 무대인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과 러시아 학생이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서로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려 주변을 숙연케 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언어와 환경이 달라도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국제적으로 공동 창·제작한 ‘AFTER WAR 전쟁 후에’의 유럽 투어 공연 모습. ACC재단 제공

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제작된 문화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더욱 활성화해 아시아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세계에 알리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전남여성가족재단, 5대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교육기회와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에 나선다.

15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나선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대학생, 이주민, 지역사회 단체, 일반도민 등 공공

기관 및 의무교육대상 기관을 제외한 누구나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5개 분야다.

희망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남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가 각 분야별 1시간씩, 최대 3시간을 지원한다.

신청은 11월까지며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061-260-7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亞문화전당,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

일반부·청소년부 등 2개 분야 수상작, 오월 홍보자료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담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3 ACC 민주·인권·평화 캐릭터 공모전’은 오는 4월 23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공모전 주제는 ‘민주·인권·평화 가치 및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담은 밝고 미래지향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명칭’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일반부와 어린이·청

소년부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청년·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어린이·청소년부는 만 18세 이하가 대상이다. 두 부문 모두 개인 혹은 5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ACC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20명(팀)을 선발, 오는 5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전당장상과 함께 모두 1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ACC 오월문화주간과 민주·인권·평화 관련 대표 캐릭터로 팬 상품 제작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된다. 또 ACC미디어 월과 SNS 등 ACC의 각종 홍보 매

체에 게시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ACC 누리집(<https://www.acc.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응모작과 함께 전자우편(52song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류홍보과(062-601-4264)로 문의하거나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이번 공모전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우수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오월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